

사회

총장도 면장도 체육인도 돈이라면...

전문대 총장 교수 채용대가 뒷돈·골프잡대 영장 신안군 모 면장 수의계약 업체에 뇌물 받아 구속 생활체육 광주 야구연 간부 수천만원 횡령 영장

상아탑의 수장부터 면장, 체육인까지 지역 내 사회지도층들의 '비리'가 연일 적발되고 있다. 교수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는가 하면, 체육단체 간부는 회원들이 낸 공금을 빼돌렸다.

◇교수 채용 '뒷돈' 현직 총장 첫 영장=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7일 광주 모 전문대학의 교직원 채용비리의혹(광주일보 3월 12일 6면)과 관련해 이 대학 총장 김모(62)씨를 배임수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008년 5월 성형외과 의사 신모(47)씨로부터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주름살 제거 수술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또 지난 2007년 6월 당시 광주에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던 박모(여·48) 교수로부터 이 대학 사회복지경영학과 교수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총장은 2008년 교수 모집 당시 응시자격의 세부 전공을 변경해 박씨에게 유리한 채용공고를 내도록 학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과 박씨는 계약 추적을 통한 경찰 수사 진행되자 1000만원에 대한 3년 전 차용증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 결과 최근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계약 뇌물 면장 구속=목포경찰청은 17일 관정공사를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신안군 모 면장 최모(4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공무원 배모(33·8급)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호회원 1200명의 회비가 든 협회 통장을 관리하면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협회 운영비 3650만원을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역시 같은 기간 560여만원을 빼돌렸지만 지난 9월 자체 감사에서 회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쳐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면장은 또 조경수 납품과정에서 조경업자에게 일반 가격의 3배가 넘는 견적서를 제출토록 해 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8000만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육 단체 간부 공금 횡령=광주경찰청은 17일 체육 단체 공금을 빼돌린 국민생활체육 광주시 야구연합회 관리부회장 광모(40)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무이사 서모(3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광씨는 동호회원 1200명의 회비가 든 협회 통장을 관리하면서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협회 운영비 3650만원을 9차례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역시 같은 기간 560여만원을 빼돌렸지만 지난 9월 자체 감사에서 회비 유용 사실이 드러나자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허위사실 유포혐의 피소 김양수 장성군수 무혐의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상훈)는 17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받은 김양수 장성군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군수는 6·2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이 주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택시비를 주고받는 장면이 잘못 알려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고소를 당했다.

앞서 김 군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월 불기소 결정을 받았으나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 측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를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우리동네 도서관 생겼어요"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영)는 17일 소태동 동구문화센터에서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열었다. 개관 첫날 지역 어린이들이 온돌식 유아 독서 전용공/N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고층건물 7곳 중 1곳 소방안전 '불량'

광주·전남 11층 이상 9곳... 대책 마련 시급

광주·전남지역 내 11층 이상 고층 건물 7곳 중 1곳은 소방안전점검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았다. 최근 부산 해운대와 중국 상하이에서의 고층 건물 화재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실정에서, 이들 고층 건물들의 전기시설이나 소화·경보·피난 설비 등에 문제점이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방방재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고층복합건축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따르

면 광주·전남 지역 11층 이상 60곳 중 9곳(15%)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방재청이 지난달 1일 부산 해운대 우신골드스위트 화재 이후 이달 5일까지 소방 공무원과 건축, 전기, 가스 전문가 등 2135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고층 건물의 소방안전 여부를 진단한 것으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광주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고층 건물이 상무지구 오피스텔 2곳, 북구 오피스텔 1곳 등 오피스텔 3곳,

북구 주상복합건물 2곳, 북구 및 광산구 아파트 각각 1곳 등 거주자가 많은 곳으로, 화재 발생 후 대규모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드러났다. 이들 고층 건물들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전기설비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전남의 경우 고흥과 장흥지역 고층 건물 2곳이 적발됐으며, 스프링클러나 자동화재탐지기가 등이 불량판정을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들 고층 건물 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건물물 무단증축하거나 옥상층이나 통신실을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건물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신가동 도로서 할머니 버스치여 숨져

17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신가사거리쪽으로 향하던 시내버스(운전자 오모·53)가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60~70대로 추정되는 노인 미상의 여성이 크게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버스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종필기자 exian@kwangju.co.kr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화순군 동면 농공단지 인근 도로 모습(왼쪽)과 17일 전봇대 이설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모습.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

화순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 항의하자 치우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가 세워져 있다면 운전자는 어떤 기분이 들까. 얼마 전까지 화순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초순부터 이날 현재까지 동면 운농리 농공단지 인근 비포장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농공단지 오가는 화물차 운전자와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길이 200m 도로의 폭을 기존 3.5m에서 6m로 확장한 뒤, 왕복 2차선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도로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연출되기 시작했다. 넓어진 도로 중간 지점에 전봇대 2개가 30m 간격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 이는 군이 기존 도로변에 있던 전봇대를 확장된 도로변으로 이설하지 않은 채 폭·포장공사를 먼저 실

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도로 한가운데 전봇대가 세워져 있는 '황당한' 상황은 공사 마무리 단계인 최근까지 이어져 누군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해당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 사진은 조회 수가 4만6700건이 넘는 정도로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하나같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황당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박모(43)씨도 "전신주를 먼저 옮기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인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병규 화순군 군정기획발전단장은 "전봇대 주변에 안전 장치를 한 만큼 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순=김홍기기자 kimho@

경기 여주 남한강 이포보 공사장 인근서 軍 보트 전복 3명 사망

17일 오후 3시50분께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이포대교 인근 남한강에서 8명이 탑승한 군용 단정(소형선박) 1척이 뒤집혀 군인 3명이 사망했다.

육군에 따르면 5군단 예하 공병부대 소속 장병 8명을 태운 단정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호국훈련을 앞두고 남한강에서 도하훈련 중 수심을 측정하다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탑승자 전원은 구조됐으

나 4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여주군 고려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중 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는 중대장 강인규(29) 대위, 박현수(22) 상병, 이상훈(21) 일병 등이며, 부대장인 신종현(23) 하사는 의식불명 상태다.

단정이 뒤집힌 지점은 4대강 사업 3공구 현장인 이포보 공사장 인근 하류로, 물살이 빠르고 와류현상이 심한 지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토양 오염' 이순신대교 진입로 공사 중지

이순신대교 진입로 공사 현장 토양기름 오염(광주일보 11월 17일 6면)과 관련해 여수시가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

17일 시는 월내동 여수산단 내 진입로 시공사인 GS건설 사무실에서 이와 함께 여수산단의 낙포동 일원 사고 현장 토지 소유주 GS칼텍스와 여수환경운동연합 등과 협의를 갖고 즉각 토양오염도 조사 실시와 공사 중지를 결정했다.

GS칼텍스는 이날 토양 오염도 측정 계획을 준비해 여수시와 여수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 조사기로 하고 GS건설도 여수시의 공사 중지 요청

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 조치 결과에 따라 토양 오염된 지역 전체를 복구할 방향을 행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5일 이순신대교 진입로 공사 현장 터파기 공사 중 지하 3m 깊이에서 다량의 기름때가 발견되자 감독기관인 전남도와 관련 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mihang@

나원침 (8173) 김중두



경북서 중학 담임교사가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경북 고령의 한 중학교 담임교사가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0대 A교사는 지난 6월이후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해 A교사를 소환 조사, A교사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3세 이상인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A교사의 비위사실을 경북교육청에 통보했다.

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를 다시 벌여 이르면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밥값 대신 '전자발찌' 말린 출소자

○"갓 출소한 성범회자가 밥값이 없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와 연동된 휴대용 단말기를 식당에 맡겼다가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쇠감.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김모(53)씨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밥값 대신 휴대용 단말기를 맡기고 도주했다는 것.

○"이후 법무부 직원은 전자발찌 신호를 따라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주인에게 밥값 1만3000원을 대신 지불하고 단말기를 수거한 뒤 경기도 양평에서 김씨를 검거.

○"조사 결과 김씨는 출소 당일에도 신고한 거주지를 벗어나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국 김씨는 지난 12일 구속 영장이 발부돼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학편입 마무리

대기업 취업 마무리

실전트레이닝!

수도권 편입대비
편입영어 Final Course

이공계,자연계 편입대비
편입수학 Final Course

전남대 편입대비
TEPS 100점 올리기 Project

김영편입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062) 227-8088